

제 96 호

연중 제 26 주일

(강림 후 17)

1974. 9. 29.

숲 정 이

| | |
|-----|-----|
| 발행인 | 김영일 |
| 인쇄인 | 합승천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론】

죽어 본 사람



김 환 철 신부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신비(神秘)를 느낀다.

그토록 푸르르며 싱싱했던 초하(初夏)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툭툭 떨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우주의 비밀(秘密)을 본다. 이제 가을인가보다.

한국의 추석은 마냥 좋지만 하다. 추석의 아름다운 고풍(古風)이 있는 한국의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한국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운(幸運)일 것이다

가을은 정녕 죽음을 묵상(默想)하라고 주어진 계절이라 여겨진다.

우리에게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정녕코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죽음앞에는 너와 내가 어디 있으며, 지자(知者)와 권자(權者)가 어디 있겠느냐? 죽어라, 네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自明)한 것인데도 죽은 다음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심산(心算)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죽어봤나?”하고 입버릇처럼 뇌까리는 말투가 서글프다. 죽어본 사람이 없는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죽어본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은 역사도 실증해주고 있는 바이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지라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푸르른 희망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오래오래 주님 궁(宮)에서 살리라.” 내일은 추석 명절이다. 어린이들이 때때옷을 입고 송편을 먹는 것만이 추석 명절의 전부가 아니다. 모를지 풀아가신 조상들에게 툄다 드린 효성을 기워잡고져 고인들의 영전에 다례(茶禮)를 갖추고 명복(冥福)을 비는 여기에 바로 추석 명절의 진의(眞意)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유의 미풍(美風)을 받아들여 한국 주교단에서는 교황청의 유포(允許)를 얻어 추석날을 고인들의 합동 위령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한국의 모든 성직자들이 합동 위령 미사를 일제히 봉헌한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자손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스도 형제안에서 죽음앞에 합동 위령의 날이 있으니, 고오히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야란 풀밭에 이몸 누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전동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개회식

□**입당송**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 공정한 처사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현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소서.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야모스 6:1a, 4-7 경향잡지 9월호 P. 68) 멋대로 살며 노래하다가 이제는 귀양 가리라.

□**찬가송** ◎ 내 영혼아 야훼님 찬양하라.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고 사도 잡힌 이를 풀어주시도다 ◎

□**제 2독서** (디모데오 전서 6:11-16 성서 P. 482)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시면서 가난한 자 되셨으니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 되었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6:19-31, 성서 P. 175) 너는 행복하고 나자로는 불행하더니, 이제는 나자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생하는구나.

□**신자들의 기도**

1. 모든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우리는 감사드리기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힘만으로는 갈을 건 없는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이미 이 세상을 하직할 영혼(부모, 친척, 은인, 아무도 기억하는이 없는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3. 우리는 오늘을 복자 의부행사로 정하여 당신들의 사랑의 증거를 높이 현양하며 기리나이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의 불이 우리 마음안에 꺼지지않게 도와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당신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당신 중에게 내리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소서, 이 몸에게 희망을 주신 그 말씀을, 피로울 제 내 위로는 이것이니이다.

(4) 폐회식

* 숲 정 이 산책 *



추석 선들은 위령미사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위령의 날과 추석

2월 50전의 시비

이 태 주 (알로이시오)

1. 위령의 날

천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을 위령성월(慰靈聖月)이라 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를 바치고 죽음에 대해 묵상한다. 11월 2일은 특별히 위령의 날(追思亡)이라 하여 모두들 교회 묘지에 모여 기도 올리고 새로운 무덤을 축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조상 대대로 8월 보름날을 추석이 라 하여 풍성한 수확에 감사드리며, 햇곡식으로 조상의 묘를 찾는 풍습이 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이 좋은 풍습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하여 추석날을 위령의 날처럼 지내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대두된 토착화(土着化) 정신을 따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추석을 더욱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한 해의 수확에 감사드리며, 조상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에 기울어서는 안 되겠다.

2. 추석

8월 15일을 추석(秋夕) 또는 가배일(嘉俳日)이라고 한다. 추석 때가 되면 농사일도 거의 끝나서 햇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 풍년을 즐길 수 있으며, 과일도 풍성하고 일기도 불한불서(不寒不暑)하여서 좋은 때이고 달도 가장 밝은 때이다. 새옷으로 갈아입고 신편으로 떡도 하고 술도 빚어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성묘(省墓)를 한다. 5, 6월 열천하에 땀흘린 보람을 8월에 느끼는 것이니 「5월농부 8월신선(五月農夫 八月神仙)」을 마음껏 맛보게 된다.

객지에 분산되었던 가족들도 추석명절에는 고향에 돌아간다. 요즘에도 추석에는 귀성열차를 따로 낼 정도로 귀성객이 많으니, 설과 추석만은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옛 풍속에 의한 것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사당에 차례를 올린다. 차례는 설날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의한다. 다만 추석에는 신편과 많은 때이므로 친신하는 때 신편으로 음식을 마련한다. 조상의 묘가 멀든 가까운 어른을 앞세우고 조상의 미담을 들어가면서 열을 지어 성묘를 간다. 객지의 자손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것도 성묘를 하기 위한 것이니,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풍습이다.

벌초 추석 2, 3일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풀을 베니 벌초라고 한다. 한식 때에 묘를 손질하고 가을에 한 번 벌초를 하는데 낫을 잘 들게 갈아 가지고 가서 풀을 베는다. 묘지가 멀면 낫을 갈아 새끼로 갈아 수십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벌초한다. 조상의 묘에 잡초가 우거진 것을 자손의 수치로 여기고 있다.

(2. 추석참조: 을유문고 73호 「한국 풍습지」 p.64)

지난주말.

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차장과 한 중년 신사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야! 차장! 너 왜 2월 50전 앞내줘?」「거스름돈이 없어요!」「뭐? 거스름돈이 없어?」 그러면 15원만 받아야 할게 아니냐?」「뭐요? 15원만 받아요? 원 기가 막혀서-」

이렇게 시작된 2월 50전의 시비 사연은 5월의 승차 할인 증명서를 지닌 중년 신사가 35원의 광주~송정리간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20원을 냈다. 그런데 차장은 35원에서 5월이 할인된 17원 50전만 받지 않고, 20원을 모두 받았다. 이에 중년 신사가 항의를 하여 시비가 비롯된 것이다. 두 사람의 시비는 크게 번져 버스안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동승한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나중에는 옥저거리 까지 오고 갔다.

2월 50전! 어린이의 소유 처럼 되어 있는 눈깔 사탕 한개를 사려고 해도, 5원을 주어야 한다. 한 여름 인기 높은 아이스케키 역시 최하 5원을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공중 전화 1통화 역시 5원이다. 나는 언젠가 4살 먹은 어린 조카에게 5원짜리 동전을 내밀었다가 단 한번에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유는 5원을 가지고서는 구멍가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봉어빵 한개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2월 50전이란 5원의 반절 밖에 되지않는 돈이며 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곳에도 쉽게 사용 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시비를 하였고 싸웠던 것일까? 2월 50전의 현실적 가치를 물랐기에? 아니면 티끌 모아 배산이라는 건전한 재산 때문에? 아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에 대한 오만과 과시 그리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알파한 인격 때문이었다. 비좁고 복잡한 버스안의 상황이었고, 대수롭지 않은 금액의 거스름돈이었지만 「거스름돈이 없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하는 예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었던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주장에 앞서, 남을 보다 적은 돈으로 승차 할 수 있도록 특별혜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들 결코 2월 50전의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남의 이익을 위한 양보와 희생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인정 받고 봉사 받기를 앞세운다면, 역시 2월 50전짜리의 시비와 인격을 낳고 말 것이다. 보배로운 진주는 깊은 바다속에 숨어 있는 조개안에서, 은밀히 남모르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의 고귀한 인격도, 자아의 완성도, 결코 자신의 오만속에서가 아니고,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겸비한 겸허속에서 비로소 형성 될 것이다. 정말이지, 그날 버스가 학교 앞에 닿을 때 까지 나의 가슴은 그들의 2월 50전짜리 시비에 무겁게 짓눌려 답답했다. (부제)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⑥ 6289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⑥ 7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업 소 아 과 의 원

업 의 도(시문)

TEL. ⑥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양 지 쪽□



차거운 달

한 상 감

봄의 달에 비해서 가을의 그것은 더 차게 느껴진다고 한다. 내일이면 또다시 팔월 보름의 크고 둥근달을 대한다. 오곡이 익어 풍요함을 맛보는 이 시기에, 우리네 조상들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드리며 먼저 가신 조상의 묘를 찾는 미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도, 모두 즐거움에 넘쳐야 할 이 시기에 마음이 무거움은 왜일까?

달이 갈수록 작박해지지만 하는 인정,

모든 것을 자기의 이해관계로만 따져 실리적으로 계산하려 드는 지나친 이기주의 가족관계나 사제간의 그것마저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을 갖는데도 자기의 출세나 이해관계와 관련지어 따진다.

사실 오늘의 우리에게만 혼자서만 거룩하게 여기는 재판이나 레위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가진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조아리지만, 없는이에게는 호랑이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또 한번 저 둥근달이 이 황량한 대지를 비춰주는데, 현대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저 밝은달을 바라볼 것인가? 그나마도 가을 달은 을씨년스럽기만 한다는데....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모두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십이 (62) 김병오

팔월 보름달을 보는 감상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자



높고 높은 사장님의 감상은? 만물을 지배하는 동그라미로 보인다



사장님 사모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보석으로 보인다



수녀님의 감상은? 영혼의 양식인 성체로 보인다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범석규, 전화 ③3498)

매주 일요일 오후3시...이삭회 (성경, 성가, 건전포크송)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매주 월~목 7시...영어교실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 여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이 주간의 성경

- 30(월) 위령의 날(11월 2일 미사)
독서(디모테오후서 3:14-17 성서 P.488)
복음(마태오 13:47-52 성서 P.32)
- 1(화) ◎ 예수 아기의 성녀 테레사
포교 사업의 수호자 대축일(3일)
독서(이사야 66:10-14c)
복음(마태오 18:1-4 성서 P.42)
- 2(수) 수호천사 기념
독서(출애굽기 23:20-23a)

- 복음(마태오 18:1-5, 10성서 P.42)
- 3(목) 청주 주교 서품
독서(욥기 19:21-27)
복음(루카 10:1-12 성서 P.154)
- 4(금)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
독서(갈라디아 6:14-18 성서 P.436)
복음(마태오 11:25-30 성서 P.25)
- 5(토) 독서(욥기 42:1-3, 5-6 12-16)
복음(루카 10:17-24 성서 P.155)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② 2 9 1 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② 2 6 4 6

아관원 옆. 구 대구집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소척척,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복자 축일 외부 행사(오늘 오전 10시, 해성학교 구내 순교자 헌양탑 앞에서 미사와 기도)
순교복자 103위 가운데 7위가 순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뜻깊은 장소에서 갖는 복자축일 외부행사에 모든 교우의 참석을 바랍니다.
2. 한국 푸르실로 제4차 전국 올드레아 (10월 3일<목>, 오전 8시반, 대전시 대흥동 천주교회에서)
① 푸르실리스타의 빠짐없는 참석바람(회비 1,000원)
회비가 착오로 인해 700원으로 통지되었으나, 1,000원으로 정정함
② 주소가 변경된 형제들에게 개별 통지를 못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3. 전국 성녀 대회(10월 9일<수> 오후 2시 서울 해화동, 대신학교에서)
공휴일을 이용해서 갖는 전국 성녀대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람.
4. 교육 분과 지도신부 개편
대학생 지도-김환철 신부
중·고등학교 지도-김봉희 신부, 간사-정승현 신부
아동 교리교사 지도-김종길 신부
5. 노송성당 신축 기금 조성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기금 조성을 위한 판매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판매사업은 일단 중지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미사시간 변경
① 평일 : 아침미사 6시반 저녁미사 7시반
② 토요일 : 아침미사 없음 오후 4시반(어린이미사)
오후 6시 특전 미사 및 학생 미사
③ 주일 : 오전 6시반, 10시(공식미사) 오후 7시반
④ 어머니미사 : 금요일 오전 10시
2. 주일학교 : 토요일 오후 3시 시작
부모님들의 협조 요망
3. 합동 위령미사 : 30일 오전 6시반
미사에물 오늘 오후 5시까지 마감
4. 성녀행사 : 10월 9일(서울에서) 참석 희망자
10월 9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 신청 요망 : 여비
5. 성심 부녀회 월례회 : 10월 4일(금) 어머니 미사 후
6. 유아영세 10월부터(월1회 마지막어머니미사<금>후)
□ 지난 주일현금 40,636원, 감사합니다.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 30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2. 75년도 예산은 10월 1일 부터 집행
총 예산이 30% 인상 됨(총액 371만원) 천주님께 받은
재물을 거리낌없이 양심적으로 교무금 납부 신임에 참여
합시다. (교무금 총액 232만원)
 3. 9월 21일 영세자 42명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4. 사도회 임원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도회장 조성호(야고버) 부회장 김 수점, 박 홍기
선교부장 김 화영, 사회부장 임 한진 교육부장 배승학
부녀부장 김 화자 재정부장 장 동주 어령회장 전중근
감사 전 중근, 양 규철
<구역장> 다가 4가 1구 유순자, 2구 전성권, 3구 김방웅
다가 3가 김 정배, 다가 1 2가 이 정우, 중앙 봉영숙
고사 1가 정 유극, 2가 김 화영, 화산 정 부녀, 효자
조홍옥, 완산 김화자, 백금주, 진북 1구 김 행자, 2구
서용현, 태평 1구 최소자, 2구 허순덕, 3구 임기림
□ 지난주 성미 1말 3되
지난주일 현금 13,64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④7032 주임 신부 함 승 현
사도 회장 조 해 철

1. 사도회 정기총회(10월 3일 오후 7시반)
사도회 임원 각 구역장 반장님들 전원 참석 요망
2.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10월 4일)
제수 형제회 일회식 및 서약식에 전회원 참석 바람
3. 10월은 매피성월 6일은 군인주일(특별현금 있음)
4. 중·고등학교 토요일 오후 6시미사 참석바람
5. 추수 감사절 합동미사(추석 아침 6시)
선령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6.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전동성당 구리시 4후련 회사 중노1가 총회선 3,000원
중·고등학교회 2,025원 중노 1가 문형주 4,000원
전동 김 발도르메오 300 중노 1가 김희숙 1,500원
인후동1가 안순이 500원 계 11,325원 누계 1,534,822원
지난주 신축성미 1말 5되 누계 219말
7. 수재민 의연금 1,500원 의류 395점
수재민 구호 협조에 감사합니다.
□ 지난주일 현금 16,33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⑤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추석 위령미사(아침 6시)
2. 복자 외부 행사(오늘 10시) 해성 교정,
교우들의 많은 참석 요망
3. 미사 변경(아동미사 6시)
4. 예비자 교리(매주 화, 수, 목, 금 저녁 8시)
5. 본당 결산서 예산 편성서를 다음주 배부
세심히 살펴 보시기를 요망
□ 지난주일 현금 11,82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⑥80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중 환

1. 사도회 전체 회의 확대(다음주 공식미사 후)
반장, 구역장, 각단체 대표, 각 공소회장단 빠짐없
는 참석 요망 안건 : 75년도 교무금 책정
2. 젊은이들을 위한 포섭 10월 3일(목)
장소 : 대문산 준비 : 점심. 500원
※ 3일 오전 7시까지 모임
3. 합동 위령미사(9월 30일 오후 7시 30분)
4. 협찬판에 게시된 교무금 납부결과에 차질 있으신분
연락 바람
5. 미사시간 변경 월, 화, 수 : 오전 6시30분 목 : 오후
7시 30분, 금 : 10시 토 : 오후 5시30분(특전미사) 주일 :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지난 주일현금 7,05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⑦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1. 중·고등학교 예비자 교리(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2. 재경부 소식 : 9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3.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월례회 있음
4. 추석 합동미사 : 아침 6시, 저녁 7시반(9월 30일)
5. 숭정터에서 미사 : 오늘 오전 10시 치명 숭정터에서
6개본당 합동미사 있음. 많은 교우 참석 요망
6. 전동 성당 미사 : 금주만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
미사 뿐
7. 예비자 교리 주일. 수요일 저녁미사 후. 저녁미사
(부활영세자)

◇ 금주의 숭정미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 테레사(상현) 풍남동 구역장

□ 지난주일 현금 43,037원, 감사합니다.